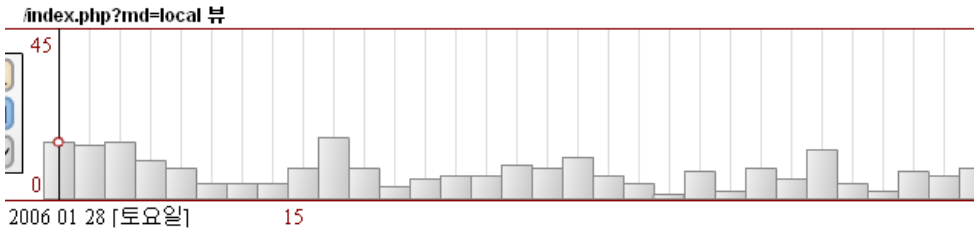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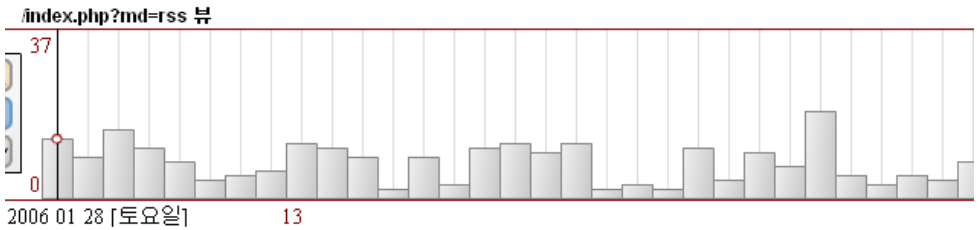


키워드에 이은, 리더와 로컬 페이지 제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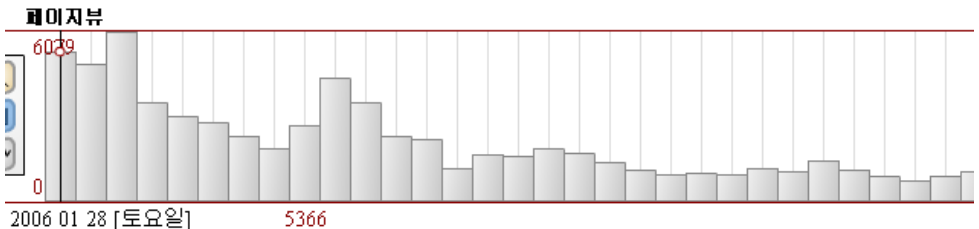
지역별 분류와 이웃 로그 페이지를 제거하였습니다. 스킨에서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 깨끗하게 삭제하였습니다. 태터툴즈를 사용하는 여러분은 어떤가요? 저만 그런 것일까요?



지역별 분류 페이지 뷰(28일 15페이지)



이웃 RSS 페이지 뷰 (28일 13페이지)



고유 방문자의 페이지뷰(28일 5366페이지 뷰, 로봇에 의한 페이지뷰 제외)

위의 통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, 전체 페이지뷰의 0.2~3퍼센트에서 그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태반이 저 일 겁니다.(간혹 검색봇도 구경하러 들립니다.) 메인메뉴에 버티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. 여행을 자주 다니는 블로거라면 지역별 분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에 필요 없다고 여겨집니다. 이미 등록해 놓은 지역정보는 이런 식으로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. 이웃 RSS 구독목록은 개인 리더기나 다름없고요.

“그래서! 날려 버렸습니다~”